



ISSN: 2586-7342 © 2021 KODISA & KJFHC  
KJFHC website: <http://www.kjfhc.or.kr>  
doi: <http://dx.doi.org/10.13106/kjfhc.2021.vol7.no2.25>

##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Elderly on Mental Health

Sook-Ja KIM<sup>1</sup>, Jea-Ug KO<sup>2</sup>

1. First Author Research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orea.

E-mail: [ksj6015@hanmail.net](mailto:ksj6015@hanmail.net)

2.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orea.

E-mail: [kojea62@cku.ac.kr](mailto:kojea62@cku.ac.kr)

Received: February 21, 2021. Revised: March 15, 2021. Accepted: March 23, 2021.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study the influence of elderly's family harmony reflects on suicidal tendency among the mental health. The study was a survey of 323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located in S city. The variables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e independent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the dependent variable suicide tendency and the mediating effect family harmony.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harmon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thoughts, it was foun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family harmony ( $t=9.389$ ,  $p<0.001$ ), and emotional intelligence was related to suicidal thought I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 $t=-7.358$ ,  $p<0.001$ ). The mediating effect, family harmony, had negative (-) influence on suicidal thoughts ( $t=-3.956$ ,  $p<0.001$ ), and emotional intelligence also showed that suicidal thoughts had negative (-) influence ( $t=-4.828$ ,  $p<0.001$ ). In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family harmon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thoughts.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can accept one's own emotions and feel the emotions of others in the position of others,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family harmony.

**Keywords:** Elderly People, Family Harmony, Emotional Intelligence, Suicidal Tendency

**Major classifications:** Health Science

### 1. Introduction

노인은 성인 자녀를 대신하여 손 자녀 양육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그들과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활력소를 찾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Song et al., 2017). 또한 노인은 자녀와의 친밀, 정서적 상호교류, 돌봄 만족, 가치관의 일치 등 가족관계가 화목 할수록 애정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높다고 보고하였다. 노년기는 손 자녀 양육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우울, 불안감, 스트레스 등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ng, Chi & Dong, 2016). 최근 통계청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0 년도 65 세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15.7%(812 만 5 천명)로 고령사회(전체인구 대비 14%이상인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중 65 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인 464 만 2 천 가구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 인 가구 34.2%, 부부 가구 33.1%, 부부와 미혼 자녀 9.7%, 부 또는 모와 미혼 자녀는 5.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치매, 뇌졸중 등의 장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봄이 이제는 사회적 연대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부양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UN 에서는 1994 년을 세계 가정의 해를 선포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에서도 2004 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한 경험이 있다. 이는 가족의 위기를 보는 세계적인 동향이기도 하다.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길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또한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제 3 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제 21 조에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보호,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지원하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4 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단독 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의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노인의 자살 총동 이유로는 34.0%가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였고, 건강이유로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33.2%, 이어서 외로움·고독이 19.5%, 가정불화가 10.3%순으로 나타났다(Kwon, Kim & Um, 2011). 거시적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노인 가족의 빈 동지 가족 현상 즉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3 세대 가구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는 노인 단독과 노부부 세대 증가, 가족해체와 사별, 부모부양 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감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서도 자살총동 사유는 주로 노인의 4 고인 빈곤, 가난, 외로움(고독), 역할 상실과 가정불화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통계청 노인의 자살 현황과 분석에 따르면, 가족관계에 화목 도와 혼인 상태와 같은 가족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 년 65 세 이상 노인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자살 수는 3,593 명으로 자살률은 48.6 명으로 나타났다. 2018 년 대비 자살자 수는 221 명(6.6%) 증가하였으며 자살률 0.9 명(1.9%)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 자살률은 남자(82.2 명)가 여자(23.7 명) 보다 3.5 배 높고, 전체 자살 사망자 중 남자는 72.1%, 여자는 27.9% 비율 차지하였으며, 노인의 자살 수단은 목매(52.7%)이 가장 많았다. 빠른 사회변화에 새로운 풍습으로 1986 년 미국에서 등장한 'double income, no kid(일명 DIMK: 딩크족)으로 부부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고 둘만의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 세대로 자녀에게 구속당하고 싶지 않는 스타일을 말한다. 그리고 Two Only No Kid(일명 TONK: 톱크족)으로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가, 취미를 즐기면서 노년을 보내는 노인층을 뜻하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이처럼 사회변화는 가족의 새로운 탄생 신조어처럼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 가족관계는 노인에게 노후의 행복과 장수, 성공적 노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Cheong & Yi, 2010). 이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노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정서적 지능이 자살 경향성에 어떠한 관계를 하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 정서적 안정, 관심과 배려 영향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2. Theoretical backgrounds

노인복지에서 노인문제 국제적인 대응을 찾아보면 UN의 국제행동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 세대간 상호의존성,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을 담고 있고, WHO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를 노인복지문제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 기술의 발달은 가족구성원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이 버공간과 비대면 통신기기 활용으로 개별적 가족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은 가족 내에서 정서적 기능을 충족하였으나, 정보기술 발달은 다른 친밀한 타인과 교류를 경험하면서 가족 속의 개인화 현상인 자기중심의 의식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족 결속(solidarity)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호 왕래하면서 가사의 생활 이야기를 서로 논의하고 교류하면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성공적인 노화란 노인의 대인관계 및 지속적인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속하는 것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사회참여 활동가 전 생애 과정의 안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인과 가족의 자녀와 관계는 친밀한 결속력은 노부모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며, 가족 화목 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부모 성인 자녀 간의 친밀 유대 관계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가족애의 친밀감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Cho, 2007).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 중에서 자녀와 상호교류와 친밀감과 가족 간의 애정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권력구조나 역할 구조 등의 사회적 관계와 개인 간의 심리·정서적 구조인 심리적 관계가 포함된다. 즉, 가족 관계란 넓은 의미로 가족 행동의 총체 이자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Welchman, 2011). 이처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Mohamed, Weisz & Waring, 1978). 사회관계와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 능력을 대표하는 개념이 정서지능(EI, Emotional Intellingence)이다. Salovey and Mayer(1990)는 정서 지능은 여러 상황이나 사회 환경변화에 작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서적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과 타인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Salovey & Mayer, 1990). 보웬(Bowen)은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 체계는 가족구성원의 감정과 사고 공유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미분화된 자아는 사소한 것에서도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능은 우리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공과 적응은 정서적 지능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Goleman, 1995). 선행연구들은 높은 정서 지능이 친 사회적 행동, 부모의 온정, 가족관계와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정리하면, 정서 지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충동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며, 타인 등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는 능력이 자유롭지 못하다. 정서 지능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면서, 타인을 편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 건강성이 노인의 정서지능 및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이 정서 지능의 발달과 더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정서적 지능이 자살 경향성에 어떠한 관계를 하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 정서적 안정, 관심과 배려 등의 가족 화목도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3. Research Method

#### 3.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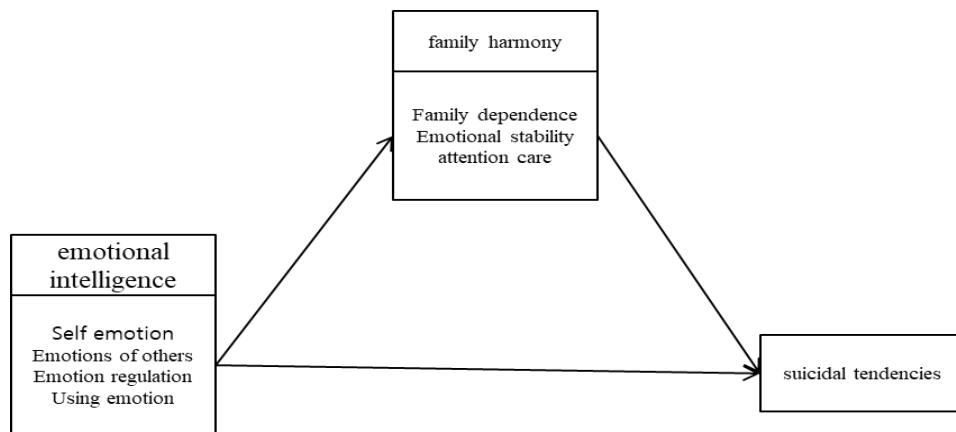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 H1:** 정서 지능은 자살경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가족 화목은 자살경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정서 지능은 가족 화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정서 지능이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족 화목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 3.2. Object of study

본 연구는 2020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S시 E구 위치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32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기관의 협조 하에 조사 목적을 설명 후 개인 정보 비밀 준수 서명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3. Research tools

본 연구 조사 변수는 독립변수인 정서적 지능(10 문항), 종속변수인 자살 경향성(5 문항), 매개변수인 가족 화목(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살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Lee and Moon(2015)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자는 자살경향성을 “가끔 살고 싶지 않다,” “최근에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 본적이 있다,” “내 삶이 내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세상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시도를 해 본적이 있다” 로 측정하였다. 하위 변인으로 가족 상호 의존도, 정서적 안정, 가족 관심과 배려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4.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measured variables

**Table 1:**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 name	question	Factor loading value	Eigen-values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Self-emotion	intelligence1	.757	2.520	25.197	25.197	.755
	intelligence4	.740				
	intelligence3	.724				
	intelligence2	.705				
Using emotion	intelligence10	.863	1.684	16.837	42.034	.750
	intelligence9	.727				
Emotions of others	intelligence5	.873	1.656	16.564	58.598	.683
	intelligence6	.766				
Emotion regulation	intelligence8	.810	1.065	10.650	69.248	.645
	intelligence7	.501				

KMO=.848, Chi-square=853.088, df=45, p=.000

**Table 2:**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suicidal tendencies

Factor name	question	Factor loading value	Eigen-values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Suicidal tendency	Suicidal tendency 4	.868	3.319	66.374	66.374	.869
	Suicidal tendency 2	.863				
	Suicidal tendency3	.857				
	Suicidal tendency1	.763				
	Suicidal tendency 5	.710				

KMO=.850, Chi-square=800.699, df=10, p=.000

**Table 3:**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family harmony

Factor name	question	Factor loading value	Eigen-values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Family dependence	Family harmony 4	.871	8.681	43.407	43.407	.970
	Family harmony 6	.863				
	Family harmony 3	.859				
	Family harmony 7	.846				
	Family harmony 2	.842				
	Family harmony 9	.828				
	Family harmony 10	.813				
	Family harmony 11	.806				
	Family harmony 5	.801				
	Family harmony 12	.781				
Emotional stability	Family harmony 8	.745	3.650	18.248	61.655	.924
	Family harmony 1	.709				
	Family harmony 13	.850				
	Family harmony 16	.815				
Attention care	Family harmony 15	.788	2.680	13.402	75.057	.795
	Family harmony 14	.768				
	Family harmony 20	.825				
	Family harmony 19	.814				
	Family harmony 17	.725				
	Family harmony 18	.697				

KMO=.940, Chi-square=6724.673, df=190, p=.000

### 3.5.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method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를 코딩하여 SPSS 23.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의 일반적 요인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과 측정 변수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3 단계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Research results

### 4.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70.0%, 남자가 30.0%로 나타났으며, 출생 지역에서는 농촌이 61.3%, 도시가 38.7%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75-79 세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인에서는 부부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도 42.7%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배우자 생존여부에서는 있다가 52.0%, 없다가 48.0%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에서는 자가 68.4%로 가장 많았고, 자녀 집,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자녀대화시간에서는 1시간 이내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없다, 1-2시간, 4시간 이상, 3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국민학교(초등 졸)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에서는 무교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기독교, 가톨릭,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에서는 보통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움, 여유, 매우 어려움, 매우 여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여부에서는 없음이 86.1%, 있음이 13.9%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나쁨,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 마련에서는 정부보조금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일/개인연금, 저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민으로 건강 악화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힘든 내용에서는 건강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도 21.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여가시간에서는 TV 시청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 있음, 친구 만남, 운동, 사회봉사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 4.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measured variables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정서지능에서는 타인 정서가 2.8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 활용, 장기 정서/정서 조절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은 1.54 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화목에서는 가족 의존이 3.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 배려, 정서 안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왜도 값이  $\pm 3.0$  이내, 첨도 값이  $\pm 10.0$  이내에 존재하고 있어 측정 변수에 대한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d variables

구 분		N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	323	2.76	.51	-.292	.314
	Emotions of others	323	2.81	.65	-.049	-.346
	Emotion regulation	323	2.76	.53	-.476	.905
	Using emotion	323	2.77	.71	.019	-.399
Suicidal tendency		323	1.54	.76	1.494	1.839
Family harmony	Family dependence	323	3.57	.95	-.652	.198
	Emotional stability	323	3.51	1.00	-.539	.201
	Attention care	323	3.56	.89	-.407	.32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 지능의 자기 정서, 타인 정서, 정서 활용은 자살 생각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화목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화목은 자살 생각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for measured variables

Division		Emotional intelligence				Suicidal tendency	Family harmony		
		Self - emotion	Emotions of others	Emotion regulation	Using emotion		Family dependence	Emotional stability	Attention car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motion	1							
	Emotions of others	.411***	1						
	Emotion regulation	.323***	.033	1					
	Using emotion	.349***	.461***	-.020	1				
Suicidal tendency		-.319***	-.310***	-.098	-.277***	1			
Family harmony	Family dependence	.436***	.315***	.073	.233***	-.223***	1		
	Emotional stability	.422***	.368***	.223***	.228***	-.198***	.692***	1	
	Attention care	.180***	.411***	-.001	.420***	-.227***	.364***	.358***	1

\*\*\*p<.001

## 5. Hypothesis testing

### 5.1.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tendencies

가설 1 인 정서 지능이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 R Square 값이 0.143 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4.3%로 나타났으며, F=14.434 로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D-W 값이 1.869 로서 자기 상관이 없고, 공차 한계가 0.1 이상, 독립변수 간의 VIF 값이 10.0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정서(t=-3.110, p<0.01), 타인 정서(t=-2.764, p<0.01), 정서 활용(t=-2.226, p<0.05)이 자살경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 활용이 높을수록 자살경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설 1-1, 1-2, 1-4 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1-3 은 기각되었다.

**Table 6:**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tendenci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ampling error	β			Tolerance	VIF
Suicidal tendency	(constant)	3.410	.289		11.788	.000		
	Self emotion	-.287	.092	-.192	-3.110**	.002	.698	1.433
	Emotions of others	-.197	.071	-.169	-2.764**	.006	.713	1.402
	Emotion regulation	-.047	.079	-.033	-.596	.551	.871	1.148
	Using emotion	-.142	.064	-.133	-2.226*	.027	.746	1.340

R Square=.154, Adj R Square=.143, F=14.434, D-W=1.869

\*p<.05. \*\*p<.01

### 5.2.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family harmony on suicidal tendencies

가설 2 인 가족 화목이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 R Square 값이 0.67 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7%로 나타났으며, F=8.683 으로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D-W 값이 1.641 로서 잔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공차 한계가 0.1 이상, VIF 값이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 배려(t=-2.766, p<0.01)이 자살경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심 배려가 높을수록 자살경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설 2-3 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1, 2-2 는 기각되었다.

**Table 7:**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family harmony on suicidal tendenci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ampling error	β			Tolerance	VIF
Suicidal tendency	(constant)	2.534	.199		12.733	.000		
	Family dependence	-.103	.060	-.129	-1.707	.089	.505	1.979
	Emotional stability	-.038	.057	-.050	-.666	.506	.508	1.969
	Attention	-.138	.050	-.162	-2.766**	.006	.846	1.182

care							
------	--	--	--	--	--	--	--

R Square=.075, Adj R Square=.067, F=8.683, D-W=1.641

\*\*p<.01

### 5.3.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family harmony

#### 5.3.1.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family dependence

가설 3-1 부터 3-4 인 정서 지능이 가족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 R Square 값이 0.206 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0.6%로 나타났으며, F=21.857 로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D-W 값이 1.571 로서 잔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고, 공차 한계가 0.1 이상, VIF 값이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정서(t=6.442, p<0.001), 타인 정서(t=2.450, p<0.05)가 가족 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가 높을수록 가족 의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설 3-1, 3-2 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3-3, 3-4 는 기각되었다.

**Table 8:**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family depend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ampling error	β			Tolerance	VIF
Family dependence	(constant)	1.151	.349		3.292	.001		
	Self-emotion	.719	.112	.383	6.442***	.000	.698	1.433
	Emotions of others	.211	.086	.144	2.450*	.015	.713	1.402
	Emotion regulation	-.099	.095	-.055	-1.037	.301	.871	1.148
	Using emotion	.043	.077	.032	.558	.577	.746	1.340

R Square=.216, Adj R Square=.206, F=21.857, D-W=1.571

\*p<.05. \*\*\*p<.001

#### 5.3.2.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stability

가설 3-5 부터 3-8 인 정서 지능이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 R Square 값이 0.228 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2.8%로 나타났으며, F=24.779 로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D-W 값이 1.756 으로서 잔차(Residual)의 자기 상관성이 없고, 공차 한계가 0.1 이상, VIF 값이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정서(t=4.682, p<0.001), 타인 정서(t=4.137, p<0.001), 정서조절(t=2.410, p<0.05)이 정서 안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 조절이 높을수록 정서 안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설 3-5, 3-6, 3-7 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3-8 은 기각되었다.

**Table 9:** Analysis of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stabi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ampling error	β			Tolerance	VIF
Emotional stability	(constant)	.238	.361		.658	.511		
	Self-emotion	.539	.115	.274	4.682***	.000	.698	1.433
	Emotions of	.369	.089	.240	4.137***	.000	.713	1.402



others								
Emotion regulation	.237	.099	.126	2.410*	.017	.871	1.148	
Using emotion	.033	.079	.024	.419	.676	.746	1.340	

R Square=.238, Adj R Square=.228, F=24.779, D-W=1.756

\*p<.05. \*\*\*p<.001

**5.3.3.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ttention-caring**

가설 3-9부터 3-12인 정서 지능이 관심 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 R Square 값이 0.229 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2.9%로 나타났으며, F=24.863 으로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D-W 값이 1.601 로서 잔차(Residual)의 자기 상관성이 없고, 공차 한계가 0.1 이상, VIF 값이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인 정서(t=5.032, p<0.001), 정서 활용(t=5.348, p<0.001)이 관심 배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정서이해, 정서 활용이 높을수록 관심 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설 3-10, 3-12 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3-9, 3-11 은 기각되었다.

**Table 10:** Analysis of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ttention-car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ampling error	β			Tolerance	VIF
Attention care	(constant)	1.571	.323		4.863	.000		
	Self emotion	-.087	.103	-.050	-.846	.398	.698	1.433
	Emotions of others	.401	.080	.292	5.032***	.000	.713	1.402
	Emotion regulation	.020	.088	.012	.226	.821	.871	1.148
	Using emotion	.380	.071	.303	5.348***	.000	.746	1.340

R Square=.238, Adj R Square=.229, F=24.863, D-W=1.601

\*\*\*p<.001

**5.4.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harmon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tendencies**

가설 4 인 정서 지능이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 화목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1 단계에서는 정서 지능이 가족 화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9.389, p<0.001), 2 단계에서는 정서 지능이 자살경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358, p<0.001).

3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가족 화목이 자살경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3.956, p<0.001), 정서 지능도 자살경향성이 부(-)적 영향으로(t=-4.828, p<0.001), 영향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obel test 결과 z=-3.647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지능이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족 화목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가설 4 는 채택되었다.

**Table 11:**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harmon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thoughts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R Sqaure (Adj R Sqaure)	F	t	p
			B	Sampling error	β				
1stage	Family	(constant)	1.054	.269		.215	88.161***	3.922	.000

	harmony	Emotional intelligence	.900	.096	.464	(.213)		9.389***	.000
2stage	Suicidal tendency	(constant)	3.525	.272		.144	54.143***	12.939	.000
		Emotional intelligence	-.715	.097	-.380	(.142)		-7.358***	.000
3stage	Suicidal tendency	(constant)	3.756	.273			36.131***	13.771	.000
		Emotional intelligence	-.518	.107	-.275	.184		-4.828***	.000
		Family harmony	-.219	.055	-.225	(.179)		-3.956***	.000

\*\*\*p<.001  
Sobel test: z=-3.647\*\*\*

### 6. Summary of hypothesis test results

Table 12: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Results	Hypothesis testing
Hypothesis 1	1-1	Self-emotion	Suicidal tendencies		-	Accept
	1-2	Emotions of others			-	Accept
	1-3	Emotion regulation			x	Reject
	1-4	Using emotion			-	Accept
Hypothesis 2	2-1	Family dependence	Suicidal tendencies		x	Reject
	2-2	Emotional stability			x	Reject
	2-3	Attention care			-	Accept
Hypothesis 3	3-1	Self-emotion	Family dependence		+	Accept
	3-2	Emotions of others			+	Accept
	3-3	Emotion regulation			x	Reject
	3-4	Using emotion			x	Reject
	3-5	Self-emotion	Emotional stability		+	Accept
	3-6	Emotions of others		+	Accept	
	3-7	Emotion regulation		+	Accept	
	3-8	Using emotion		x	Reject	
	3-9	Self-emotion	Attention care	x	Reject	
	3-10	Emotions of others		+	Accept	
	3-11	Emotion regulation		x	Reject	
	3-12	Using emotion		+	Accept	
Hypothesis 4		Emotional intelligence	Suicidal tendencies	Family harmony	Partial mediated	Accept

### 7. Conclusions

노인의 자살경향성과 가족 화목 관계를 연구하여 노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정서적 지능이 자살 경향성에 가족 화목이 어떠한 관계를 하는지 연구 결과. 첫째, 노인의 정서적 지능은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 하위변인에서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 활용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서 조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가족 화목 도와 자살 경향성에서는 가족 화목도 하위변인에서 가족 의존성, 정서 안정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관심 배려에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배려와 관심이 노인 자살 예방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서 지능이 가족 화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하위 변인인 가족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가 높을수록 가족의 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조절과 정서 활용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 지능이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 조절이 높을수록 정서 안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활용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정서 지능이 관심 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정서이해, 정서 활용이 높을수록 관심 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정서와 정서 활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 지능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 화목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 지능이 가족 화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정서 지능이 자살경향성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가족 화목이 자살경향성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서 지능도 자살경향성에 부적 영향으로 나타나, 이는 영향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지능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족 화목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자살원인으로 노인의 정서 지능과 가족의 유대강화와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한 영향 변인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고령 사회에서 노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정서적 단절로 인해 외로워지고 역할 상실을 유발하여 노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가족 화목 증진 프로그램 강화는 고령사회 자살 예방과 노인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령 사회에서 노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정서적 단절로 인해 외로워지고 역할 상실을 유발하여 노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References

- Cheong, B. E., & Yi. (2010). The Survey Research on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 Emphasis on the Social Relationships. *Survey Research*, 11(2), 45-69.
- Cho, B. E. (2007).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Family Relations in Old Age: Current Status and Task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1), 59-75.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NY, England. Bantam Books, Inc. doi, 10, h0095822.
- Kwon, J. D., Kim, Y. J., & Um, T. Y. (2011).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who live alone with care services: a moderating effect of alcohol drin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ious suicidal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 Welf Aged*, 51(51), 297-320.
- Lee, J. Y., & Moon, Y. S. (2015). Effects of chronic pai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uicide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445-458.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Journal of Gerontology*, 45, 57-73.
- Mayer, J. D., Caruso, D. R., &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298.
- Mohamed, S. N., Weisz, G. M., & Waring, E. M. (1978). The relationship of chronic pain to depression, marital adjustment, and family dynamics. *Pain*, 5(3), 285-292.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ong, S. M., Lee, W. K., Lee, Y. H., Kang, H., Kim, E. H., & Kang, H. (2017). Listening to the voices of grandparents raising primary-grade grandchildren using a qualitative stud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1), 185-203.
- Tang, F., Xu, L., Chi, I., & Dong, X. (2016).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Chinese-American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4(11), 2356-2361.
- Welchman, L. (2011). Muslim Family Laws and Women's Consent to Marriage: does the law mean what it says. *SocialDifferenceOnline. Journal of the Center for the Critical Analysis of Social Difference at Columbia University*, 1, 63-79.